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공선, 공동선을 위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실제

지상선¹⁾ 성균관대 겸임교수
석종준²⁾ 침신대 겸임교수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posal of a picture book healing program as a search for a 'common good' to help intellectually self-reliant people live independentl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ree men in their 30s and 40s who mainly showed intellectual disability among the subtypes of DSM-5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The researchers examined their dynamic process using the 'Sensitive Integration Self-Reliance Activation' program using picture book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effectiveness of the picture book sensory integration activation program suggested that mediated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workers, activity guardians, and program researchers at the self-reliance center was very important. All of them sought to pursue the common good through good influence.

Key Words: independent living, picture book therap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diation role, common goo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2023)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를 발표에 따르면 인구수의 감소에 비해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준다. 자신의 삶을 컨트롤 못하고 환경과 그에 대한 권한을 빼앗긴 신경발달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에

1) 지상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

2) 석종준. 침신대학교 조직신학과 겸임교수

게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중 지적장애는 8.5%를 나타내고 있다(2023, 장애인 뉴스). 특히 성인 지적발달장애 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역량은 물론 상담과 교육, 다양한 중재 서비스 등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을 돕고 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였고 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6.25.).

하지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활 치료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중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 자립생활 센터현장에서 활동 사례를 보며 누구나 느끼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외적으로 체계적 중재를 지원받게 되면 개인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George et al, 2003; Turnbull et al., 2002; Walker et al., 1996).

이러한 중재역할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활동가 자신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존적 체험의 본질을 살펴야함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실존체(Four Fundamental Existentials; Van Manen, 1997)를 탐색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DSM-5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 중 지적장애 진단을 가진 30대, 40대 남성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복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외현적 지체 장애로 인한 행동 억제, 주의집중과 표현의 부족, 위축 및 불안과 우울 등 그리고 행동 통제의 비활성화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등이 외부로 향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이희경, 표정민, 2022; 정정진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이용한 감각통합 프로그램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다. 독서치료에서 사용되는 매개인 책이 발달적, 임상적 연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지체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언어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Katims, 2000; 이혜선, 2021; 이량서, 2022).

그림책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1년 6개월, 두 달에 한 번 진행했다. 시간에 흐름에 따른 동태적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활 센터사회복지사와 활동보호사와 함께 중재 프로그램의 공유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하였다. 센터자체 예산의 문제로 많은 제한 점이 있었으나 <연구참여자 1>은 실제 직업을 찾았고 <연구 참여자 2, 3>은 가정에서 활동보호사의 관리를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연구 문제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중재적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 정의

지적장애인이란 자폐증 또는 지적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기타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거나 정신지체인과 유사한 적응행동을 포함한 조건들과 관련 있고 하였다(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2007). 이들은 감각 기능의 통합적 시각,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을 통해 소근육, 대근육, 시각, 청각 협응 등 유연성과 지구력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읽기, 쓰기 등의 언어 활성화 훈련은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Katims, 2000).

2. 자립(자활)과 공공선 정의

‘자립’이란 스스로가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립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주는 특별한 권리가 아닌,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개인의 권리인 것이다(Brisenden, 1986).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른 의사결정에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립(자활)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모델은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신의학적 접근이었다면 최근에는 ‘회복’의 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이근희, 2014). 신경발달장애인에게 ‘회복’이란 차별과 낙인이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회복의 과정으로 정의한다(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이러한 활동에 동료의 지원과 지지, 문화·예술·직업 재활 등의 공동의 활동이 있다.

공동선(Common good)은 “모든 인간의 유익이나 선함”을 지향한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시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친애"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친애는 같은 영역에 있는 "공통교제"(koinoia)에서 일어나고 누구 아무리 좋은 것을 모두 가졌다고 해도 친구 없는 삶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진정한 정의의 형태는 친구와 동등성을 갖는데 있다고 보았다.(Aristoteles, 297-299). 리코르르는 좋은 삶을 목표로 하는 윤리로서 "호의적 자발성"을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타자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인정할 때 실현되는 공동선의 덕목이었다.(Ricoeur, 190).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공동선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선은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비라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 특정 행위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을 돕기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와 가치를 가리킨다. 또한 철학, 경제학, 정치학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모든 사람이나 주어진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분배되고 이익 되는 것으로 정치나 공공 영역에서 선한 행동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3. 치유 그림책

그림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의미한다. 그림책은 그림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글로써 표현 할 수 없는 행간의 숨은 뜻과 심층적 의미를 발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Jalongo, 1998). 이와 같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배움과 지혜를 제공한다(현은자 외, 2004). 그림책은 세상 사람과 세상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의 형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텍스트 속에 내포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지혜를 의식 또는 무의식 차원에서 자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그림책은 인간의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새로운 세계로 예인하여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든다(현은자 외, 2004; 지해연, 2009). 이와 같은 그림책은 초기에는 유아에 표현력, 정서지능 향상, 문해력 증가와 같은 교육적 목적에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그림책이 지닌 치료적 효과는 성인과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연구되었다(지상선, 2023; 김화수, 이지우, 장은영, 2023). 특히 상담에 경우, 전문가 주도의 인지적 상담은 지적장애인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중재 도구로써 실제적 이야기를 통해 치유라는 커다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다. 신체인식, 주의력, 양측 협응, 목적 있는 행동, 추리와 논리, 자신감, 자아조절을 통한 의사소통 등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감각통합 프로그램의 원리

1) 고유수용감각

Charles Sherrington(1906)은 처음으로 "고유수용감각, interoception(내수용성), 그리고

exteroception(외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오성민, 2016, 재인용). Merzenich, Kaas, Wall, Nelson, Sur & Felleman(1983)의 연구에 의하면 말초 신경에서 중추로 자극을 전달하는 정중 신경이 소멸 후 몇 주가 지나면 주변으로 새로운 피하 뉴런들의 감각 신경이나 자율 신경의 신호들이 정중 신경의 신호로 대체하며 인식한다. Jenkins, Merzenich, Ochs, Allard & Guic-Robles, (1990)는 촉각 자극이 증가하면 대응되는 대뇌 피질의 감각 표상이 12배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같은 실험연구들은 감각 신호가 신체 밑으로부터 뇌 내에 존재하는 뉴런의 표상에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적 변화는 고유수용감각으로 인한 뇌의 변화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활치료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유수용성 감각자극의 필요성과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들에게도 활용하고자 했으며 잠재적인 장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진미, 김경미 2008).

2) 감각통합치료

Ayres(1972)에 의해 체계화한 이론으로 환경의 요구에 대한 중요 개념을 적응반응(adaptive response)으로 보았다. 감각통합은 자신의 신체와 주위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을 조직화하고 그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신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학적 과정(Neurological process)이다(양경희2000; 최대근2009; 이은경, 2005 재인용). 감각통합법에 관한 진단군으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발달장애 등 많은 수의 연구를 통해 중재되었다(정혜림 외 2010; 홍은경, 2020). 감각통합치료는 감각 경험을 신경학적으로 바람직하게 조절하여 멀티로 제공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신경운동 발달 경험과 적응반응 활동을 의미 있게 계획하고 조직하여 중추계 처리능력을 키워준다(Fisheretal. 1991). Parham과 Maillouxz(1996)과 고명숙(2020)은 뇌성마비 아동의 감각통합 활동은 대·소 동작의 기능의 발달에 의한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성의 발달, 학습 수행능력, 인지, 언어능력의 향상을 제시했고, 더불어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신체적 자기 효능감은 신체를 통해 해당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Ryckman, Robbins, Thornton, & Cantrell, 1982). 치료 시에는 생애 원시적인 이러한 감각들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미희, 2005).

3) 감각중재 역할로서 그림책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양한 감각에 자극에 둘러 싸여 있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등 고유한 감각 체계를 통해 세상을 감지한다. 이러한 감각 체계를 고유수용감각, 전적감각과 같은 자극을 통해 그 정보를 중추신경계에서 조직하고 해석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학습되어지고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생존 기술을 익히고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전반적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도 포함된다(Bertenthal, 1996; Chow, 2005). 이러한 감각체계처리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소통 등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적응력 및 행동 조절에 따른 감각자극의 신경계 장애를 가진 경우는 문제와 참여 부적응 등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Cohen et al., 2007; Kimball, 1999).

자기조절의 상실은 적절한 적응감각 기능 훈련이 생활 영역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 영역 속 환경에서 적응반응(adaptive response)을 체계화한 Dr Ayres(1972)는 감각통합을 우리 몸의 신체 상태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의 조직화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 반응은 적응 행동의 수준 단계와 연결이 된다. 개인의 적응 행동수준은 성숙과 학습, 개인적 자립 등 사회적 책임감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회성 성취와 학습능력에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Ayres 1979; 이상춘, 한기정, 1984; 조인수 1989; 지석연, 남궁영, 2002).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은 현재 정신지체, 학습장애 및 자폐 등의 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효과가 높은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유은영, 2004; Cohn, 2001; 최지선 외,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일상생활의 기능까지 손상된 장애는 성인이 되어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Gilfoyle, Grady, & Moore(1990)의 보고에 의하면 적응과 연관된 신경계는 감각운동기능에 관여하는 대뇌변연계 중추신경계의 대뇌피질과 시상부위에 연결된다. 그러한 기능은 자율신경 및 항상성 조절 및 공감 및 정서적 기능, 지각 및 욕구상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적응을 위한 정서적 적응감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감각통합치료는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극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또한 강조된다. 이에 고유수용성 감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전정감각과 촉각, 시각 등 다감각을 포함하였다(Roley, 2003). 따라서 감각통합 활동으로 그리기, 글쓰기, 시쓰기, 리듬, 작업 치료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김희영(2012)은 글씨쓰기 속도의 중재는 평가 선택 및 목표 설정을 할 때 고유수용성감각과 양측 협응, 시운동조직화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감각기능의 촉각과 인지기능의 시지각, 공간 지각, 사고조작 등 운동기능과 함께 포괄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시사했다.

포괄적이며 개별적 감각통합 중재 활동으로 리듬청각자극(RAS) 기법 활용 연구 분석인 음악치료와 물리치료 비교 연구(이지연, 2020),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상실한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리듬자극(RVS)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조남정, 이동엽, 2011), 손기능의 유의성 및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효과 연구(김현호 외, 2011), 재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시치료 '마음 빛을 찾아서'란 심상 시치료가 정서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내면의 긍정성을 나타낸 연구(박정혜, 정미화 2019) 등을 주목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 중재가 일상 생활기능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김소영, 송병호, 2010,

정희승, 2015)결과들이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감각 중재가 운동능력과 적응행동 향상에 효과적(서연태, 정기천, 2009)이며 주의력 향상(김보경 외, 2010), 인지 및 언어발달(권명옥, 2003)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언어의 발달과 언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향상은 물론 의식의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이준영, 2012). 이러한 이유로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은 감각중재 역할로써 적절하며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감각기능을 끌어내는데 용이한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김혜정(2013)연구에 살펴 볼 수 있다. 그림책을 사용하여 지적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다감각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그림책 감각통합프로그램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중재 프로그램을 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부분은 가족이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중독, 진로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지적장애, 학습장애 및 자폐, 발달장애 등을 위한 자활 연구는 심미연(2011) 외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활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SM-5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과 주요 진단을 가진 30대, 40대 남성을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 DSM-5 신경발달장애 하위유형의 주요 진단 특징

하위 유형	주요 진단 특징
지적장애	지능수준이 매우 낮아서 학습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
의사소통장애	언어 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및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	(1)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 (2)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 (3)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것의 결함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주의집중의 곤란과 산만, 부주의한 행동과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가진 경우
운동 장애	발달 운동의 협응 장애로 운동발달이 늦고 동작이 서투르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표 II> 연구 참여자

참여자	연령	주요 하위요인	주요 특징
연구 참여자1	40대	지적장애 및 주의력 결핍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림 그리기, 글쓰기가 어려움
연구 참여자2	40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3	30대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	과잉 행동은 없으나 주의집중 곤란과 산만한 어려움

2. 연구 도구

1) 그림책 선정

그림책 선정은 그림책전문가, 한국독서치료학회 수련감독인 연구자가 직접 선정했다. 자아를 활성화 시키고 성격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키며 특히 직관적이며 내면의 감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담긴 그림책으로 선정하였다. Dusay(1972)는 자아의 활성화는 언어와 음성 태도 표정 자세 몸짓과 행동, 체온 및 기타 많은 비언어적 단서 등 모든 관찰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림책은 무의식적 의식적 감각을 더욱 잘 끌어낼 수 있다(Katims, 2000; 지상선, 2022)

2) 감각통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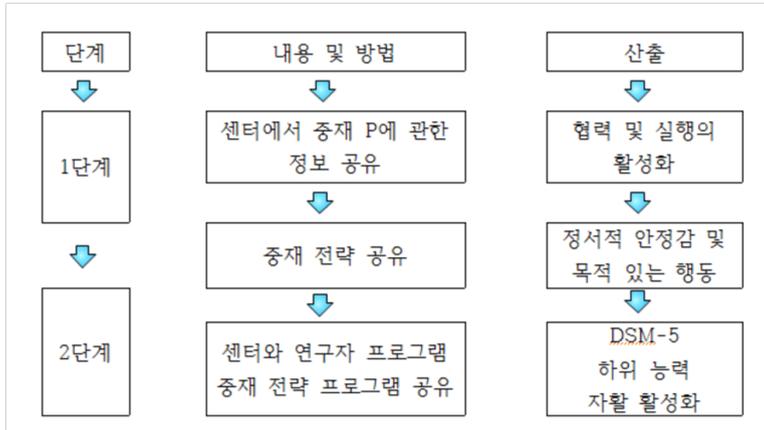
감각통합 활동이란 시각, 청각, 운동감각, 촉각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한 통합적 활동으로 그림책을 들려 준 후 그림책 내용과 이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활 활동으로는 리듬 느끼기, 모방하기, 표현하기, 작업하기, 손과 발 협응하기, 역할하기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그림책으로 중재하여 통합하였다.

3.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연구에 사용한 그림책 감각통합 자활 활성화 프로그램 방법은 김경미(2003)가 설계한 감각통합치료의 기본 원리를 수정·보완 한 것을 이용하였다. 기본원리는 1) 참여자의 능동적 내적 욕구를 중시하여 신체와 환경에 반응하게 한다. 2) 감각자극의 종류와 강도변화는 참여자의 활동 반응 수준에 맞춰 결정해 간다. 3) 발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환경과제에 알맞은 수준을 고려한다. 4) 참여자의 정상적 발달과정 원리를 활용하여 활동을 설계하고 치료로 전개한다. 발달과정의 원리로는 Henderson, Paterno(1986)의 피아제 이론에 적용과 신체의 지식의 구체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활 센터와 연구자 중재 절차는 Ayres(1972)가 개발한 모델을 차용한 손정선(2017)의 가정연계 중재 절차와 감각 통합의 과정을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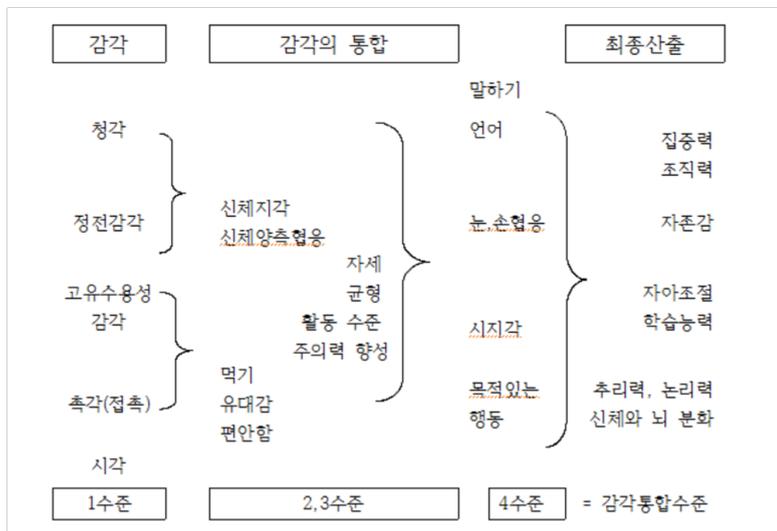
하였다.

1) 중재 절차 및 구성



<그림 1> 센터와 연구자 중재 절차 및 구성

2) 감각 통합의 과정



<그림 2> 수준별 감각통합의 과정

3)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두 달 한 번 1회기 프로그램으로써 9회기 실시하였고 1회기에 2시간 정도 소용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자활 활동과 그림책 감각통합 활성화 프로그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 매회기 반복된 자활 활동

기간	활성감각	매회기 반복된 자활 활동	
1단계	청각, 시각	책읽기	다양한 색깔표현
2단계	모방, 주의력	책읽기	바리스타 모방하기

<표 IV> 그림책 감각통합 활성화 프로그램

단계	차시(1h)	활성감각	그림책	감각통합 수업 주요내용
1 단계	1	신체지각 양측협응	사랑에 관한 다양한 그림책	- 다양한 색깔, 색깔 펜 표현 활동 - 이름 그리기 및 '나' 그리기 - 그림책 읽어 주기
	2	주의력	다양한 동물 그림책	- 다양한 그림책 관찰 후 그림책 선정 - 이미지 뽑기 후 자신의 이름 붙이기
	3	모방하기 양측협응	LaLaLa / Candlewick	- 그림책 'La' 따라 하기 - 그림책 스토리 상상하기 -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림책 액자 만들어 주기
	4	주의력	사랑해 사랑해	- 그림책 글자 따라 읽기 -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림책 만들어 주기
	5	목적 있는 행동	사랑해 /보물창고 <small>수준별 그림책 선정에 따라 '사과가 콩, 그리고 또 그리면</small>	- 자음 모음 글자 놀이 - 글자 구성하기 - 길거리 투어(식당 메뉴판 읽기 놀이)
2 단계	6	목적 있는 행동	하루하루 다른 색깔/ 삼성	- 이름표 만들기 - 좋아하는 색깔을 분류하기 - 그림책 안, 단어 찾기 게임
	7	추리와 논리	비 /이주영	- 영상 그림책 보기 - 가장 마음에 드는 시 그림책 장면 짚어보기 - 빗소리 따라 상황 추론하기
	8	자신감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비룡소	- 그림책 읽어주기 - 실제 강아지와 눈 맞추기 - 강아지와 소통하기
	9	자아조절	검은 강아지 /웅진주니어	- 그림책 읽어 주기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기

4) 프로그램 연구에 타당성 강화 방안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연구에 타당성 강화를 위해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모델을 채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와 자료의 해석은 연구자의 독단이 아니라

공동선이란 부분은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합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과 기술은 중재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활동보호사와 함께 적절하게 분석되고 기술되었는지를 검토 받았다.

5) 윤리적 문제 다루기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 참여자들에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연구 참여자들에 관한 모든 상황은 익명이나 부호로 표시했고 그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의 자발성을 존중했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보호자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 센터의 사회복지사의 동의와 본인의 동의를 구하였다. 넷째,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이 자료는 프로그램이 종료 후, 연구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고 허락을 받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료 분석 및 처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순차적 단계로 구분한 Van Oorschot(1996, 허용창 외 2020 재인용)의 동태적 모델을 수정·보완 하였다. 실제 사례의 동태적 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 내용의 동태적 과정을 표로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동태적 과정

<표 V>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과정

기간	주활성화 감각	연구 참여자	동태적 내용	과정변화
3월	신체지각 양측협응	참여자 1	입주상담사는 참여자 1님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림 그리기, 글쓰기를 하려면 매우 어려우며 낯을 가리고 다른 선생님이 오셔도 힘들다고 함.	낯설음
		참여자 2	차분했다. 언어의 장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말을 잘 알아들었음.	의사소통의 어려움
		참여자 3	과잉 행동은 없으나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산만했음.	주의산만
5월	주의력	참여자 1	밖에서 마중을 나왔고 '싫어요!, 좋아요!' 표정연기를 했음, 표정이 매우 밝음.	마중
		참여자 2	몰입도 길어졌으며 감각표현 활동에 흥미를 있어함	길어진 몰입도

		참여자 3	주도적으로 그림책을 뺏으며 읽어 달라고 했고 그림책 그림에 관심이 많음.	그림에 관심
7월	모방하기 양측협응	참여자 1	새로운 입주 상담사 왔다고 말을 했고 그림책을 보면서 글자를 짚고 그림책 캐릭터에 관심을 보임, 리듬에 맞춰 글자 소리 내다가 스토리를 만듦. 작업 활동을 여자 친구에게 선물한다고 함.	글자에 관심
		참여자 2	활동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책을 봄, 각 가지 색깔에 대해 반응이 좋음.	귀 기울이기
		참여자 3	'어!, 어, 어!', 반복하면서 상담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후 자신이 주도하려고 함.	주도하기
10월	주의력	참여자 1	그림책 따라 읽기,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를 함, 여자 친구에게 선물한다고 함, 여자 친구들의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함, 어떻게 하면 친구랑 잘 지낼 수 있지는 물음. 준비한 이미지 복사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후 마음껏 따라서 색칠을 함, 자기선택 한 것에 애착을 보임, 반복되는 언어가 담긴 그림책 단어를 따라하면서 표현 함, 그림을 자신 방 벽에다 붙여 둠.	여자 친구 비교
		참여자 2	단어를 잇기 놀이를 즐겨워 함, 생활그림책 또는 글자에 관심을 많이 가짐, 활동이 마치면 칭찬 받고 싶어 함, 주도적으로 활동 함.	애착
		참여자 3	2019, 마지막 만남을 알고 있었고 글자의 구성에 관심을 갖게 됨, 따라 쓰기를 함, 활동가에게 자신의 집 근처에 길거리 투어를 시켜줌. "여기, 커피 맛있어요."	칭찬받고 싶음
12월	목적 있는 행동	참여자 1	다시 만남을 기뻐함, 이름표를 만들면서 '나 알아요?' 라고 말함. 그림책에 있는 문장을 살펴보고 단어를 찾은 후 쓰기를 함, "이쯤이야!" 하는 표정을 지음.	활동가 안내
		참여자 2	사업비 종료	
		참여자 3		
6월	목적 있는 행동	참여자 1	.지난 해, 단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자기 이름 쓰기가 되	이쯤이야!
		참여자 2	행을 했음, 그림책 장면을 짚어 가면 소리를 냄, 자신이 먹고 싶은 음료를 요구 함.	글쓰기 퇴행
		참여자 3	스스로 선택하고 끼워 넣고 천천히 한 장씩 그림책을 넘긴다. 참여자 2의 네모 그리기를 도운 후 매우 기뻐함.	타인 돕기
7월	추리와 논리	참여자 1	바리스타가 되어 차를 준비한 후 함께 오신 선생님들에게 내어 주며 기뻐함, "나 잘해!, 취직했어!" 당당하게 말하며 웃음. 글자에 관심이 많음.	당당한 모습
		참여자 2	1시간 활동에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없음, 수수께끼를 통해 선택하고 추론하기를 즐겨워함,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에 '우주'라고 이름을 붙여 줌.	이름 붙이기

		참여자 3	참여자 2와 함께 작업을 할 때 기다려 줌, 단어를 따라 쓰기를 좋아함. 작업 활동에 몰입도 시간이 길어짐	기다려 주기
9월	자신감	참여자 1	강아지를 편안하게 앉고 돌봄이 가능함	돌보기
		참여자 2	강아지를 무척 좋아함, 동물 매개치료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 함, 안정적이며 편안한 모습을 보임, 참여자 3을 동생처럼 안아줌. '안아!'라고 말함.	안정적이며 편안한 모습
		참여자 3	강아지를 무서워 함, 그러나 호기심을 가지면 참여자2의 눈치를 살핌, 관찰 후 천천히 강아지 먹이를 주고 기뻐함.	관찰하기
10월	자아조절	참여자 1	사업비 종료	
		참여자 2	강아지 산책에 대한 기대감에 얼굴이 밝음, 먼저 참여자 3에게 양보함, 순서를 기다리며 돌아가면서 강아지를 돌봄, 강아지를 앉고 징검다리를 건너고 계단을 내려옴. 사진도 찍어 달라고 함.	양보
		참여자 3	강아지 산책 중 빠짐, 더 많이 강아지를 돌보고 싶어 함,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음, 강아지에게 '아아(앉아!)'라고 소리 냄. 그러자 강아지가 기다림, 다음 시간에도 산책을 가자고 함	빠지기

위의 표에서 <연구 참여자 1>의 동태적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낯설음, 마중, 글자에 관심, 여자 친구 비교, 타인 안내, 이쯤이야, 당당한 모습, 돌보기' 과정 변화로 수업을 종료하였다. 1단계 보다 2단계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더욱더 당당해졌고 이쯤은 할 수 있다는 언어와 표정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 2>의 동태적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길어진 몰입도, 귀 기울이기, 애착, 글쓰기 퇴행, 사물에 이름 붙이기, 안정적이며 편안한 모습, 양보' 과정 변화가 있었다. 1단계 보다 2단계 프로그램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글을 쓰거나 하는 모습이 강했으나 2단계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난 <연구 참여자 2>는 알고 있던 단어도 까먹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3>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활동 중에 화가 날 때는 화를 냈다. <연구 참여자 3>은 '주의산만, 그림에 관심, 귀 기울이기, 주도하기, 칭찬받고 싶음, 타인 돕기, 기다려주기, 관찰하기, 빠지기' 동태적 과정에서 주의집중력과 몰입도 그리고 기다림 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DSM-5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른 참여자들의 주요 특징은 <연구 참여자 1>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림 그리기, 글쓰기가 어려움, <연구 참여자 2>는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 3>은 과잉 행동은 없으나 주의집중 곤란과 산만한 어려움을 보였지만 동태적 과정 변화에서 살펴보면 그림책 자화 활성화 프로그램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회기별 활동 반응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1>의 조심스럽고 호기심이 가득하며 순응적인 모습에서 2단계 이후 ‘애... 그건 아닌데’ 고개를 갸웃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매우 주도적이며 배우고자 했다. 글자를 안다는 것에 많이 웃었다. 힘주며 말하기가 되고 안전적 바깥 생활이 가능했다. 7회기 이후 장애인 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랑했고 8회기에 종결되었다. <연구 참여자 2>는 <연구 참여자 3>을 항상 살펴보고 기다려 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2>에게 매번 활동 기회를 빼긴다. 큰 변화는 ‘싫어’란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언짢을 때, 목소리 톤에 힘이 실렸다. <연구 참여자 3>은 6회기에 <연구 참여자 2>를 돕는 모습을 보였으며 8회기에는 선생님이 되어 <연구 참여자 3>에게 그림책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고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통을 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 눈치가 빠르다. 집 안에서 안전적 활동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회기별 활동 반응 중 주목할 변화는 직업을 갖게 된 <연구 참여자 1>이다. 그는 그림책의 글자에 관심이 높았다. <연구 참여자 2> 보다 자기 의사 표현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 3>은 그림책의 그림에 관심이 높았다. 이것은 감각통합 단계의 최종 산물인 학문적 학습 단계(Ayres, 1972)라 보인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1, 2>의 자립 생활에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최초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그림책 감각통합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들의 자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재자의 공유와 역할, 정보제공이 자활에도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이어 고위수용성 감각을 촉진하는 중재 역할로 감각통합 프로그램의 다층적 논의가 이뤄지게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와 활동보호사의 구술이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들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저희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는 분들을 보면 뿌듯해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4년째거든요.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해요. 여러 프로그램을 하지만 미술치료는 어려워해서 안 해요. 도형 그리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얼마나 아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 일은 신앙심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처럼(연구자) 선한 마음을 갖고 공동의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야 해요.”(사회복지사, K)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면 행복해요. 조금씩 성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오는 것도 이분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올 수 없거든요. 좋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해요.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자꾸 반복해요. 때론 스트레스도 받지만 이분들이 웃는 것을 보면 행복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아이 같고... 마치 내 가족을 보는 것만 같아요... (활동보호사, J).

사회복지사 K와 활동보호사 J는 이 일에 선한 마음과 공동의 소명이 없다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종교적 신앙심도 매우 중요한 중재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장애인 관련 연구는 일반인들의 장애인 인식과 태도에만 국한되어있다.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의 본질적 이해를 살피는 논문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가족이 없이, 국가가 가족인 신경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과 복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예산과 지속가능한 자활 치료의 환경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중재적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연구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공동선의 한 방안으로서 그림책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해법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지적 장애인들의 자립과 그림책 치유 프로그램의 관계는 이 장애의 극복이 통합적 시간과 고유 수용 감각, 전정 감각의 자극과 활성화를 통한 해법이라는 데서 필연적 상보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통한 교육은 이미 유아들을 통해 표현력, 정서지능 향상, 문해력의 증가에 효과적 기재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현은자 외, 2004). 지적 장애인은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무조건적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고아, 과부, 나그네, 일차적 이웃이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4:29).

감각통합 치료의 원리를 기반으로 통감감적 중재적 기재인 그림책을 통하여 지적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공동선의 실현과 실천방안은 현대의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의 실행을 통하여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경, 차명희 (2019).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의 동향 분석 -'역 사적 선도성(先導成)'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68).
- 강준혁, 맹성준, 김영호 (2019). 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치료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52.
- 강수은, 이동훈 (2019).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31(3).
- 고명숙 (2020). 감각통합치료가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과 감각기능 미치는 효과. 한국신경재활학회.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 10(2)
- 김보경, 박신희, 방현선, 천송희, 한재화, 전병진 (2010). 감각통합치료가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자폐스펙트럼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4), 113-125.
- 김소울 (2017). 재활사업 참여자의 내적통제위치 상승을 위한 점토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 김화수, 이지우, 장은영 (2023). 비주얼씹기를 통한 그림책 읽기가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인연구. 25(1), 211-240.
- 김환신 (2020). 전정-고유수용성감각 중심의 감각통합중재가 ADHD아동의 감각처리 및 감정조절, 일상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내석사.
- 김현호, 황보각, 유병국 (2011). 손기능 훈련을 적용한 감각통합그룹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손기능과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구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 김혜정 (2013). 그림책과 연계한 다감각적 통합활동이 지적·발달장애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 김희영 (2012).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의 글씨쓰기 속도 및 명료도 관련요인. 전남대학교대학원. 국내박사.
- 박정숙 (2017).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활근로사업 단원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독심리운동학회. 심리운동연구, 3(2).
- 박용혁 (2008). 미술작품 감상에서 공명 은유에 의한 의미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국내박사.
- 박정혜, 정미화 (2019). 심상 시치료가 노숙인의 심리 및 정서에 미치는 효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훈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2).
- 손정선 (2017) 센터-가정연계 고유수용성감각자극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신경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육기능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 오성민 (2017).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을 위한 훈련과 신경 기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 유상희 외, (2018) 강릉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치위생 과정 사례보고. 한국치위생과학회. 치위생 과학회지. 18(6).
- 이미희 (2001). 실행 장애의 평가 및 치료의 원리. 감각통합강좌.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9(1).
- 이랑서(2022). 창의적 움직임 중심의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성인기 중증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국내석사.
- 이숙현 (2019). 발달지체 유아의 활동 참여행동을 위한 아동중심 고유수용감각 중재의 사례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국내석사.
- 이은경 (2015). 고유수용성감각통합 활동이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도식, 운동기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내석사.
- 이혜선 (2021). 지적장애인의 그림동화책 창작활동 참여 경험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이효진 (2016). 장애관련 책임어주기 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국내석사.
- 이준영 (2012). 지적장애 아동의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이 고유수용성 감각, 체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 이지안 (2020). 자폐성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감각특성관련 연구 동향: 1994-2019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논총. 36(1).
- 서연태, 정기천 (2009). 놀이지향적 감각운동이 자폐성장애학생의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2), 31-46.
- 심미연 (2012). 정신장애인을 위한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국내박사.
- 심현보(2005). 시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 요부 운동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포천중문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국내석사.
- 장애인 뉴스(2023).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 Retrieved from:<http://www.welvoter.co.kr/42144>(2023, 11. 1 인출)
- 정혜림, 최연우, 김경미(2013). 국내 감각통합치료 중재에 관한 체계적 고찰 : Ayres의 감각통합중재(ASI)를 중심으로.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11(2).
- 정희승 (2015). 가정용 감각통합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감각조절 및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9(3).
- 조남정, 이동엽 (2010). 시각리듬자극이 만성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고유수용감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9).
- 조은희 (2008). 감각통합 가정프로그램이 발달지연아동의 발달 및 감각력에 미치는 효과감각. 인제대학교. 국내석사.
- 지상선 (2022). 그림책을 이용한 자아상태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최대근 (2010). 고유수용성 감각 중심의 감각통합훈련이 발달지체 아동의 대근육 운동기능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국내석사.

- 최병욱 (2019). 자활참여자를 위한 치유 텍스트로서의 『채근담』 과 인문치료 활동.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0(63), 215-243.
- 최은희 (2018).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2018(10), 133-134.
- 최지선, 강대혁, 김진경 (2008). 감각통합치료가 발달지연아동의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 16(1).
- 허용창, 한경훈, 김동진, 문혜진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47(1).
- 홍은경 (2020).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의 중재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8(2).
-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역, 서울: 도서출판길, 2018.
- Ayres A.J. (1972). Sensory Integration and Learning Disorders.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 Ayres A.J. (1979). Sensory integration and the child.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Ayres A.J. (1989). Sensory Integration and Praxis Tests.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risenden, S. (1986). Independent Living and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1(2), 173-178.
- Bertenthal, B. I. (1996).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perception action, and representation. Annual Reviews Psychology, 47, 431-459.
- Bissell J, Fisher J, Owens C, et al. (1998). Sensory motor handbook: A guide for implementing and modifying activities in the classroom. San Antonio: Therapy Skill Builders.
- George, P., Harrower, K., & Knoster, T. (2003). School-wide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 Process for establishing a system of school-wide behavior support. Preventing School Failures, 47(4), 170-176.
- Henderson P, Paterno J (1986). Body awareness and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 Presented a Regional Conference of the Southern Association for Children Under Six; March 5-8,
- Henry OT services. (2001). Tool chest: For teachers, parents & students. Henry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Inc. Web sit: <http://www.ateachabout.com/index.asp>
- Katims D. S. (2000).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5(1), 3-15.
- Kimball, J. G. (1999). Sensory integration frame of reference. In P. Kramer & Hinojosa (Eds.), Frames of reference Frames of reference for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pp.

- 87–175).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Kranowitz C. (2003). *The out-of-sync child has fun: activities for kids with sensory integration dysfunction*. New York: Penguin Putnam.
- Merzenich, M. M., Kaas, J. H., Wall, J., Nelson, R. J., Sur, M., & Felleman, D. (1983). Topographic reorganization of somatosensory cortical areas 3b and 1 in adult monkeys following restricted deafferentation. *Neuroscience*, 8(1), 33–55.
- Resnick, S. G., Fontana, A., Lehman, A. F., and Rosenheck, R. A. (2005). An empirical conceptualization of the recovery orientation, *schizophrenia Research*, 75, 119–128.
- Ricoeur, Paul. *Onself as Another*, by Kathleen Blame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2.
- Ryckman, R. M., Robbins, M. A., Thomaston, B., Cantrell, P.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5), 891–900.
- Tawney, J. W. & Gast, D. L. (1984). *Single subject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Ohio: Bell & Howell company.
- Turnbull, A. P., Edmonson, H., Griggs, P., Wickham, D., Sailor, W., Freeman, R., Guess, D., Lassen, S., McCart, A., Park, J., Riffel, L., Turnbull, R., & Warren, J. (2002). a Blueprint for school 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mplementation of three components. *Exceptional Children*, 68(3), 377–403.
- Van Manen, M: 1997, 'From meaning to metho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Sage Periodicals Press, 7, 345–369.
- Walker, H. M., Horner, R. H., Sugai, G., Bullis, M., Sprague, J. R., Bricker, D., & Kaufman, M. J. (1996). Integrated approaches to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patterns among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4(4), 194–209.

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공동선의 한 모색: 그림책 치유프로그램 제안을 중심으로

A search for a common good to help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e independently: Focusing on the picturebook-therapeutic program proposal

논문초록

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공동선의 한 모색으로 그림책 치유프로그램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DSM-5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 중 지적장애를 주로 나타난 30대, 40대 남성을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그림책을 이용한 감각통합 자활 활성화 프로그램 방법으로 그들의 동태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책 감각통합 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활센터에 계신 사회복지사와 활동보호사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자들의 중재적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들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자립생활, 그림책 치료, 지적장애인, 중재적 역할, 공동선